

都色 洪致雲

色 金聲重 徐信業 金自中 金天年

都領僧 善元

都石手 林玉立

邊手 金汝柱

使令 李仁白 安柱民

崇禎後甲午至月 日

考古美術 卅一

◎ 古美術品海外展示委의 開催

六月二十一日 文教部文化局長室에서, 開催되었는 바 方今 歐州에서 巡回中인 古美術品展示國의 追加(葡, 瑞, 奧 三國豫定)에 대한 決定願末과 그 間의 進行狀 況에 對하여 外務部 閱事務官의 說明과 이에 對한 各 委員의 意見陳述이 있었다. 出席 委員 金鎰基 李丙燾 全鑒弼 金元龍 黃壽永

◎ 歐州古美術品의 和蘭展示開催

英國에서 展示를 終了하고 그 間 包裝運送이 無事히 進行되어 지난 六月 十五日 부터 和蘭 헤그의 市立博物館에서 開催되었다는 바 期間은 八月 十四日 까지 二 個月間이라 한다.

◎ 古代住居址의 發掘

高麗大學校 博物館에서는 文化財保存委員會의 決意를 거쳐 지난 六月 二十一日 부터 二十七日에 걸쳐 京畿道 廣州郡 九川面 明逸里에서 古代住居址를 發掘하였다. 그 結果 表土下 約二〇cm에서 徑約五m의 모를 죽인 方形 住居址가 若干基 發見하였다하며 爐址와 기둥자리도 發見되었다 한다. 同住居址에서는 甍을 石劍, 石鏃, 砥石等 多數가 出土되었다 하는데 同 遺物은 同 大學博物館에 保管되어 있다고 한다.

◎ 燕岐郡 公州郡 扶餘郡의 調査

同人 黃壽永 秦弘燮 兩氏는 지난 六月 二十四日 부터 二十六日에 걸쳐 前記地域을 旅行하여 古調를 四 四面碑像 二 座를 調査하였다 한다. 同碑像은 碑岩寺石像과 類似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內容은 本誌에 紹介되리라 한다. 一行은 補修對象으로 되어있는 公州 宋山里 古墳郡과 公山城 一帶를 돌아보고 公州 鳳凰洞 洪氏宅에 있는 石獅子 二 軀와 布教堂銅鐘(乾隆六年銘)을 調査하였다. 扶餘에서는 王興寺址와 落花岩 岩石에 「三千」만을 刻字한 現狀을 돌아보았다 한다.

第二卷 第八號 通卷十三號

石窟庵 彫像의 教理背景(一)

閱 泳 珪

佛國寺와 石窟庵의 現存遺構에 是 異常하게도 華嚴信仰과의 關聯을 發見 못한다. 이들이 建造된 西紀七五〇年을 前後하여 日本에서는 奈良에 東大寺大佛이 그리고 地方에 丈六佛이 鑄造 奉安되었으므로 그 國家造成을 引동 華嚴一色으로 謳歌코 있던 때였음을 생각할 때 筆者가 여기서 먼저 奇異한 느낌을 禁할 수 없는 問題는 이 點에 關해서였다.

極樂殿에 現在 坐高四尺의 智拳印을 맺은 銅鑄佛이 ješ신다. 일마전에 大雄殿에서 移安했다는 것이오 景德王朝의 佛敎美術의 精華를 여기서 보았노라 讚歎하는 이가 있었으나 모르는 말이다. 이 毘盧遮那佛은 景德王朝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가지 理由를 가지고 있으며 佛國寺, 石窟庵의 建造와도 關聯한 點이 없는 부처님이다 라고 나는 믿고 있다. 첫째로 이 銅鑄佛의 智拳印은 아직 景德王朝에 造顯될 性質의 것이 아니다. 더욱이 그 左右의 手位가 바뀌어져 있으며 이러한 現象은 新羅末期의 佛像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이기도 한 것이다. 둘째로 이 四尺高의 坐佛이 大雄殿의 本尊이 될 수도 없었으리니와 壬亂의 火災로 말미암아 境内의

建造物이 燒盡코 말았는데 唯獨 이 銅佛만이 無事였었다는 이야기가 理致에 맞지 않는다. 銅鑄이기 때문에 그 融沒의 度가 甚히 낮아서 그러한 경우면 主建物과 運命을 같이 하는 것이 普通으로 되어 있다.

佛國寺古今歷代記를 보면 毘盧殿이란 이름이 나온다. 或 이것을 가지고 佛國寺, 石窟庵과 華嚴信仰과의 關聯을 찾아 보려는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同歷代記엔 毘盧殿과 함께 十王殿의 이름도 나와 있음을 注意해야 한다. 十王思想은 宋初에 中國에서 形成된 것이오 우리 나라에 그 信仰이 流入되기는 高麗 中期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普通이다. 十王殿도 毘盧殿도 伽藍配置上의 位置가 金堂이나 講堂처럼 大石壇上의 主軸에서 벗어나서 훨씬 그 後面에 位置한 것이었음을 생각한다면 所詮華嚴教主에 대한 信仰을 말하는 毘盧殿은 十王殿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後世 信仰의 流動의 流動變遷과 더불어 添加된 것이라고 밖에 다른 道理가 없는 듯 하다.

一

佛國寺 大石壇上의 左右에서 있는 두 塔婆를 가리켜 釋迦塔과 多寶塔의 이름으로 傳한다. 法華經에서 온 것은 勿論이다. 이름만으로 그렇게 傳할뿐 그것이 石窟庵·佛國寺의 經營에 있어 무엇을 意味하려던 것인가에 대해선 그러나 아직 이렇다할 正當한 追究가 없었음을 안타가울게 생각한다. 대개 그 心臟의 位置에 세워진 두 塔婆의 性格을 分明히 해 두는 것이야말로 全體의 經營에서 設計者가 意圖하려던 바를 상고함에 있어 가장 必要한 工作이기도한 때문이다. 石窟庵과 佛國寺의 경우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法華經 卷第四에 見寶塔品이란 一品이 있다. 난데없는 大音聲과 더불어 地中으로부터 높이 五百由旬의 大塔이 涌出하여 釋尊의 靈山說法에 對答한다. 無量過去世에 法華經의 弘通을 誓願했다는 多寶如來의 七寶塔이 이것이다. 十方分身의 諸佛이 參集한 가운데서 釋尊은 寶塔의 門戶를 열고 多寶佛과 더불어 半座를 나누고 서로 併坐한다. 이때 二佛併坐의 儀相은 古來로 佛教美術에 있어 가장 많이 알려진 素材의 하나이기도 하나 佛國寺의 경우는 그것을 두 塔으로써 表現한 셈이다.

現存 釋迦塔의 四周에 八個의 蓮華臺가 配置되어 있다. 歷代記에 傳하기를 八方金剛座로 일러 있으나 이는 정녕 八方師子座의 誤傳인 듯 하다. 釋尊이 갖은 神通力을 發하되 八方으로 二百萬億 那由陀의 나라들을 淸淨으로 化하고 높이 五由旬의 師子座를 八方에 마련하여 分身諸佛의 參席을 맞이했다는 經文을 그대로 反影한 것임이 分명한 때문이다.

釋迦塔이 西方이면 그에 東面해서 多寶塔을 設計해 있음도 역시 經文이 가리켜주는 대로이다. 東方으로 無量億佛土를 지나서 多寶佛이 住해 계신 때문이다. 五千의 欄楯과 千萬의 龕室이 瓔珞과 旃檀과 眞珠瑪瑙로 莊嚴되고 하늘에선 曼荼羅華가 비로 뿌려지더라는 神變을 形象化한 것이 곧 이 多寶塔의 無盡한 技巧과 意匠의 多樣性을 낳게한 것일 것이다.

三

吐含山 기슭의 伽藍部와 두 石塔이 法華經見寶塔品에 根據한 見寶塔品變相임이 分明한 진데 山上의 石窟은 반드시 靈山淨土變相이 되어야 한다. 대저 法華經의 教主이자 久遠實成의 法身이기도한 釋迦牟尼佛이 靈鷲山上에 지금도 常住해 계시면서 諸大菩薩 大弟子를 모으고 說法하시는 儀相을 形象한 것이다. 法華經 卷第六 如來壽量品에 根據한다.

石窟을 들어서면 그 羨道로부터 시작해서 八部의 天龍과 密迹金剛의 兩力士 四天王, 梵天, 帝釋 等の 諸護法天王, 그리고二位의 菩薩과 十體의 羅漢이 左右로 侍立해 있는 中央과 主尊前에 引導된다. 이러한 天部眷屬의 配列數字는 此種 佛教美術에 있어 特殊한 意味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있어 그것이 法華經에 關聯된 것임을 가리키는데 具足한 것임은 두말을 필요치 않는다. 특히 天龍八部의 俱名은 法華經 通序로부터 隨時演出되어 있는 바이다. 마치 二十八部衆이 千手觀音을 隨從하고 十二神將이 藥師如來를 守護하듯 天界 八部龍王이 法華教主를 親衛함은 이 時期의 佛像造願에 있어 極東 三國에 共通된 하나의 約束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十體의 羅漢像을 곧 十大弟子로 보는 데엔 若于의 註記가 必要한 듯하다. 法華經經文中에서 十大弟子를 하나의 俱足數로서 찾아내기는 어려운 일

이기 때문이다. 萬一 佛陀로부터의 授記弟子를 그에 充當한다면 譬喩品の 舍利佛에서 授學無學人記品の 阿難·羅睺羅에 이르기까지 九數를 헤아릴뿐 維摩經에서처럼 鮮明하게 十數를 채우지는 못한다. 事實이 北魏以來의 造像例에서 본다면 龍門山 擂鼓臺와 看經寺洞에 二十五體 혹은 二十九體의 羅漢像이 周壁에 列立한 先例를 들 수 있으나 이들은 「付法藏因緣傳」에서 보는바처럼 歷代 付祖師를 形容한 것이오 이른바 十大弟子와는 無關한 것들이다. 또 日本의 東大寺 俱舍曇茶羅라든가 六宗 厨子 繪像目錄等은 비록 後世의 傳摹라 할지언정 八世紀 當代의 消息을 간직한 것으로 보아서 좋을 것이며 모두 十體의 羅漢像에 名記를 가지고 있으면 이중에 聲聞한 弟子로서는 迦葉, 舍利弗, 阿難, 目捷連 또는 須菩提, 優婆離等의 數個弟子를 發見할뿐 나머지 是 宗派에 따라 無着, 世親, 혹은 維摩, 雪山童子等 出入이 區區하다. 所詮 石窟庵의 十體羅漢이 곧 十大弟子가 되자면 不得不 다른 데서 證明의 理由를 發見할 밖에 없다. 이에 對해선 後段에 다시 言及할 작정이다.

約 五十年前이 石窟에 大修理工事が 加해졌을때 窟內 土中에서 出土한 몇가지 遺物中 높이 二尺 남짓한 方塔斷石은 石窟의 教理를 闡明함에 있어 다시 없이 重要な 發見이었다. 方形塔身의 四周로 無數한 化佛— 곧 千佛이 浮彫되어 있으며 此種의 意匠은 北魏 雲崗石窟을 비롯하여 勿論 法華信仰이 있었던 곳이면 혹은 彫刻으로 혹은 繪畫로 許多한 先例를 남기고 있음을 보아온 터이다. 大樂說菩薩의 請願을 들으신 釋迦牟尼佛이 十方分身諸佛이 來會參坐한 가운데 多寶如來七寶塔의 地上涌出과 二佛併坐, 그리고 末代付囑의 神變에 이르기까지 靈山淨土에서의 儀相을 形象한 이른바 千佛多寶塔 역시 法華經 見寶塔品에 根據한 것임은 勿論이다.

以上 佛國寺의 双塔과 石窟의 諸彫像, 그리고 이제 紹介한 千佛多寶塔等은 吐含山 全域을 알기를 法華經에 說法된 하나의 靈山佛土로 擬定한 데서 나온 設計의 一端이었음을 말해줌이 分明한 듯하다. 甚히 平易한 事實이 될지 모르나 그러나 이 平易한 事實을 이만큼 自信을 가지고 披瀝하기에 이르기까지 實로 二十有五年의 歲月이 筆者에게 必要했다.

筆者의 極히 魯鈍한 才質의 탓이 없음을 勿論이려나와 그러나 그 동안 언제나 마음속에 매이지고 풀리지 않던 것이 이제 비로소 會心の 微笑를 얻는 기쁨이란 일로 비길 바 없다.

四

이 時期의 四方佛의 通念에서 본다면 釋迦佛은 方位上의 南面을 要求한다. 그러나 吐含山石窟은 東面해 있었다. 또 釋迦佛은 반드시 그 右手를 觸地降魔印으로 持해 있기를 要求한다. 그러나 石窟의 主尊은 그 右手를 地降魔印으로 持해 있다. 說法의 相이 아닌 調伏의 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엔 十一面觀音과 十個의 龕室속에 奉安된 여러 彫像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石窟의 造像이 單純한 靈山淨土의 說法相만을 意圖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石窟庵隨想

金 元 龍

岩山에 橫窟을 파서 寺院으로 만드는 所謂 石窟寺院은 印度에서 일어나 中亞를 거쳐 中國으로 들어 왔으며 中國에서 第一인저 생긴 佛教石窟에 西紀四世紀代에 造設되기 시작한 敦煌石窟이 있다. 그리하여 石窟寺院은 信者들의 加一層의 信心과 崇仰으로 因해 더욱 發達했으며 特別히 北朝에서 盛行하고 있다.

印度의 石窟은 查이타(Chaitya)라고 불리우는 長馬蹄形平面인데 窟內部에는 壁에 平行하며 돌아가는 石柱列이 서 있어 마치 教會의 翼廊같이 되어 있고 이 石柱內側, 馬蹄形石窟의 半圓部에 수투파를 세워 信者들이 그 周圍를 돌며 禮拜하도록 되어 있다. 印度에서는 이 밖에 禰하(Viñāra)라고 불리우는 多室石窟이 있으며 이것은 僧侶들을 위한 僧院窟이 된다.